



# 주간 통일정세

2013-34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2. 대외관계    3. 대남동향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의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동향

#### 가. 정치

- **北, '1990년대 경제사령탑' 한성룡 前당비서 재조명(8/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2면 전체를 할애해 '조국과 인민이 기억하는 일꾼을 키우신 위대한 스승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1990년대~2000년대 초 '경제의 시장화'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한성룡 전 노동당 경제담당 비서를 재조명하는 기사를 실음.
  - 신문은 한성룡에 대해 당과 수령의 의도를 강한 원칙성과 순결성, 높은 실력과 추진력으로 받들었다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거창한 실천 속에는 한성룡 동지가 남긴 뚜렷한 발자취가 있다"고 그의 업적을 부각함.
  
- **北 김정은 "군사과학기술 수준 올려야"(8/2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과학기술전람관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전시품들을 둘러보고 "우리의 군사과학기술을 새로운 높이로 끊임없이 올려세워야 한다"며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진공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함.
  
- **北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자"(8/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1면 사설에서 "평양시를 주체 조선의 수도, 선군 문화의 중심지답게 웅장하고 풍치 수려한 도시로 만들며 모든 도·시·군에서 현대적인 문화후생시설과 공원, 유원지를 더 많이 건설해 우리 인민이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 우리 당의 의도"라고 밝힘.
  - 신문은 "평양은 혁명의 수도이며 주체 조선의 심장"이라며 "우리는 평양시를 수도의 지위에 맞게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며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최룡해 "평화는 귀중...전쟁 바라지 않아"(8/21, 연합뉴스)**
  - 북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 24일 북한이 평화를 귀중하게 여기고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최 총정치국장은 '선군절'(8월 25일)을 맞아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에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최종) 목표로 내세우는 우리에게 있어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다"고 말함.
  - 이어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동족 상쟁을



피하고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북과 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해소하며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함.

● **北 김정은, 새 전투함 기동훈련 참관(8/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전투함을 살펴보고 해상 기동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새 전투함을 돌아보며 배수량, 속도, 각종 무기의 성능 등을 알아보고 "최첨단 군사과학 기술성과들이 도입된 전투함선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건조한 데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으나 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훈련을 참관한 장소와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김 제1위원장은 "지능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함선은 항해와 사격조종을 비롯한 모든 전투행동을 자동적으로 할 수 있으며, 각종 대상에 대한 타격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21세기 전투함선"이라고 치하함.

● **北 '선군절' 맞아 김정일 '업적' 띄우며 경축(종합)(8/25, 노동신문)**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위대한 선군의 기치 높이 백전백승을 떨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위대한 장군님(김정일)께서 우리 혁명 앞에 최악의 시련이 닥쳐왔던 시기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 정치방식으로 정립하시고 전면적으로 구현하신 것은 우리 당의 선군혁명실록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함.
- 또한 김정일 위원장이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 식의 국가기구체계를 세웠으며 정치와 군사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선군정치를 '완성된 정치 방식'으로 확립했다고 덧붙임.

■ **김정은동향**

- 8/20, 김정은 당 제1비서, 인민군 과학기술전람관 시찰(8.20, 중통·중방)
  - 최룡해, 장정남, 리영길, 윤동현 동행
- 8/20, 김정은 당 제1비서, 8.20 '문선명'(前 통일교 총재) 사망 1주기 즈음 '한학자'(통일교 총재·문선명 배우자)에게 '추모의 글' 전달(8.20, 중통·중방)
  - '추모의 글' 김양건(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이 박상권(통일교 사무총장)에게 전달
- 8/25, 김정은 당 제1비서, 새로 건조한 전투함선 기동훈련 지도(8.25, 중통·중·평방)
  - 윤동현, 박정천, 김명식, 리병철, 황병서, 홍영철, 김병호 등 동행
  - 김정은, '전승혁명사적지 개건 지원자들'에게 감사 전달(8.25, 중방)



- 김정은, '618건설돌격대를 지원한 근로자들'에게도 감사 전달(8.24, 중방)
- 8/25, 김정은 黨 제1비서, 8.25 "선군절" 즈음 당보(노동신문)·군보(조선인민군)에 담화("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 나가자") 발표(8.25,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청년절」 경축 전국 청년과학기술성과전시회, 8.23 리영수(黨 중앙총 부장)·최상건(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전용남(「청맹」 중앙총 위원장/개막사) 등 참가下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8.23, 중통·평방)
- 「청년절」 경축 1급 남자축구 조별연맹전(김일성경기장), 8.23 4.25 팀 對 묘향산팀 경기 등 마감단계 경기 진행(8.23, 중통·중방)
- 「청년절」 경축 평양시 대학생 체육경기대회, 8.12~28 진행(8.23, 중통)
- 김정일 '선군영도 시작(8.25)' 53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8.24 최룡해(보고) · 문경덕(사회) 등 참가下 4.25문화회관에서 진행(8.24, 중·평방·중통)
-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총적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 평화는 더없이 귀중하며, 우리 인민은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동족상쟁을 피하고 조국을 자주·평화적으로 통일할 것을 바라고 있음.
- 전체 조선민족은 외세의 지배와 간섭, 침략과 전쟁책동을 반대 배격하고 남북간 대결상태를 해소, 통일을 방해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함.
- 우리는 자주, 평화, 친선의 이념밑에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 친선협조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며,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 것임.
- 주석단 :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김격식, 장정남, 김기남, 최태복, 김영춘, 양형섭, 리용무, 강석주, 오극렬, 김원홍, 김양건, 김영일, 김평해, 곽범기, 주규창, 김창섭, 문경덕, 로두철, 최부일, 리명삼, 조연준, 김영대(8.25, 중방)
- 인민무력부의 경축 무도회, 8.24 진행(8.24, 중통·중방)
- 박봉주(내각 총리),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청천강화력발전소 생산정형 현지 요해 및 '전국 206가지 일용잡화 전시회장'과 농업과학원 시험장 방문(8.24, 중통·중방)



## 나. 경제

### ● 北, 외국인투자 자원개발 편중 지적...다각화 모색(8/22, 연합뉴스; 경제연구)

- 2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의 경제 분야 계간지 '경제연구' 최신호(7월 30일 발행)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투자 활동에 대한 일반적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서 개선해야 할 내용은 우선 투자의 다양화가 원만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함.
-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가장 큰 대상들은 주로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채취공업 부문 기업소들과의 합영, 합작 단위들"이라며 "투자 방식뿐 아니라 투자 부문에서 다양화를 실현하지 못하면 앞으로 외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서 부정적 후과(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지적함.

#### ■ 기타 (대내 정치)

- 자강도 초산청년2호발전소건설, 설비조립과 시운전, 자동조종체계 확립 등 마감단계 공사 추진(8.19,중통)
- 중앙과학기술통보사 창립 50돌 기념보고회, 8.20 최태복(黨중앙위 비서)·장철(국가과학원 원장) 등 참가下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8.20,중방)

## 다. 사회·문화

### ● 北, 생물공학단지 '평양생물기술중심' 조성(8/20,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평양시에 들어선 비타민C 공장이 '평양생물기술중심'에 있다고 20일 보도하면서 생물공학 연구·생산단지를 조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0일 보도함.
- 평양생물기술중심에는 비타민C 공장 외에도 생물기술연구소, 복합미생물비료공장, 시험분공장 등이 있고 생물농약 '아베르멕틴', 항산화 건강음료 'EM-X', 미생물발효 촉진제, 물 정화제, 소화가루약 등을 생산했으며 이들 제품은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 유엔 "北수해지역에 수인성 질병 확산"(8/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수해지역에서 설사환자가 급증하는 등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유엔 보고서를 인용해 24일 보도함.
-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실은 '북한 홍수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수해지역에 기초 의약품과 의료 장비가 부족하다며 "홍수 피해 지역에서 수인성 질병이 전염·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시함.



- **北** 잡지, 노동성과 '과학적 측정' 중요성 강조...왜(8/25, 연합뉴스; 경제연구)
  - 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북한 계간지 '경제연구' 최신호(7월 30일 발행)는 '과학적인 경제계산의 중요성'이라는 논문에서 "누구에게나 일한 만큼, 번 것 만큼 차례지도록(돌아가도록) 할 데 대한 사회주의 분배 원칙의 요구를 실현하자면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경제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함.

## 2. 대외관계

### 가. 일반

- **中** 구금 김광호씨 처제·처남 등 2명 복송될 듯(8/19, 연합뉴스)
  -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재탈북자 김광호씨 부부와 딸은 한국 국민으로 인정이 돼 한국행이 성사됐으나 함께 탈북한 김씨의 처제와 처남은 이미 복송됐거나 조만간 복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함.
  - 통신은 서울의 한 대북소식통을 인용해 19일 "중국 당국이 한국 국적인 김씨 부부와 딸 등 3명과 한국 국적이 없는 김씨의 처제·처남을 20여 일전 분리해 수감했다"면서 "이해 김씨의 처제·처남은 10여일전 투면의 변방대로 보내졌다"고 밝혀 "복송이 거의 확실하다"고 밝힘.
- **北** "분단 유관국들, 한반도 평화 기여해야"(8/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평화적 환경은 민족의 번영을 위한 선결조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조선분열에 책임있는 유관국들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실현하고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 안정을 보장하는데 긍정적 기여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진정으로 조선반도에서의 평화를 위한다면 기술적 전쟁상태를 의미하는 정전상태를 하루빨리 끝장내기 위한 대응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북한이 최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우리 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앞으로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힘.
- **北** 나선상품전시회 개막...미국 등 120개 회사 참가(8/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제3차 나선국제상품전시회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 독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와 지역의 120여 개 회사가 기계설비, 강철제품, 전기 및 전자제품, 경공업 제품, 의약품 등을 출품한 가운데 19일 개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北, 뉴질랜드인 오토바이여행단 보도(8/19, 조선중앙통신)**
  - 뉴질랜드인으로 구성된 '백두-한라 오토바이여행단'의 출정행사가 19일 백두산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여행단장인 개러스 모건 박사가 "조선이 통일돼 조선인민이 백두에서 한라까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여행단원들의 소원"이라며 "앞으로 조선의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함.
  
- **스위스, 북한에 스키 리프트 수출 금지(8/19, 존탁스차이팅; 20미닛)**
  - 스위스 정부는 지난달 북한에 스키 리프트 장비를 수출하겠다고 한 민간 회사의 승인 신청을 받았으나 유엔 제재에 따라 북한에 수출할 수 없는 호화물품이라는 이유로 승인을 거부했다고 스위스 신문 존탁스차이팅과 '20 미닛' 등 현지 언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함.
  - 스위스의 바르트홀레트 마쉬넨바우(BMF)라는 회사는 원산 인근에 110 km의 슬로프와 케이블 카, 호텔, 헬리콥터 착륙장 등을 갖춘 호화 스키 리조트를 건설하려는 북한 정부와 755만 프랑(약 90억 8천785만원) 규모의 리프트와 곤돌라를 결합한 케이블카 시스템 판매 계약을 맺었지만 스위스 정부는 리프트 장비를 호화물품으로 분류한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판단과 보고에 따라 수출을 금지하기로 결정함.
  
-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방북(8/20, 조선중앙통신)**
  -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와 일행이 20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세계식량계획, 대북 식량지원 긴급자금 확보(8/21, 자유아시아방송(RFA))**
  - 대북 식량지원 자금 부족을 호소했던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긴급 자금 확보로 대북사업 중단 위기를 넘겼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함.
  - 나나 스카우 WFP 북한 담당 대변인은 20일 RFA와 인터뷰에서 WFP가 북한 주민 영양지원 사업에 500만 달러(약 55억9천만원)를 긴급 배정해 연말까지 지원할 곡물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 **北, 러 연해주서 내년부터 옥수수 재배(8/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은 내년부터 러시아 극동 연해주에서 옥수수 재배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연해주 정부가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연해주 정부는 전날 공식 홈페이지에 북한 경제대표단 일행이 지난 19일 연해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 대표단 단장인 김춘성 조선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세르게이 시도로프 부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연해주 달네레첸스크 지역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농업 합작사업으로 옥수수 재배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탈리아도 北에 스키장 설비 수출 안하기로(8/22, 자유아시아방송(RFA))

  - 이탈리아의 리프트 제조업체 '라이트너'의 마우리치오 토테스코 공보담당장이 이탈리아 외무부와 협의해 당분간 북한 스키장 건설에 어떤 부품도 공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中, 北고려항공 구형여객기 6대 영공 운항 금지(8/2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2일 고려항공 페이스북을 인용해 고려항공 여객기 6대가 올해 중국 영공 운항이 금지되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운항이 금지된 여객기는 러시아제 투폴레프 여객기 Tu-154 2대, Tu-134 2대, 러시아제 일류신 Il-62 2대 등으로 제작 연도가 1976~1986년으로, 고려항공 여객기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기종에 속함
- 北 "한일합병조약은 날조품"...일에 과거청산 촉구(8/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불법무법의 강도적인 날조품 한일합병조약'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 체결은 일제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 말살하기 위해 무력에 의한 위협과 공갈로 날조한 것이라고 비판
  - 신문은 "일제는 국제조약 체결의 초보적인 원칙과 규범마저 난폭하게 유린하면서 합병조약을 날조했다"며 "일본이 합병조약의 비법성과 그 무효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과거청산을 성근하게(성실하게) 하는 것은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제도를 고수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치법률적 문제"라고 지적함.
- 유엔 北인권조사위원장 "北, 현지 방문조사 허용해야"(8/22, 연합뉴스)

  -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북한이 강제 수용소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들 시설의 존재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목된 만큼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가 이러한 시설의 존재를 믿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독립적 기구가 해당 장소를 볼 수 있도록 북한 방문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北 김영남,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 면담(8/22,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2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방북 중인 피터 마우러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총재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유엔 회원국,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 이행 부진(8/23,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 소리(VOA)는 2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22일 현재 그동안 한 번이라도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96개국 가운데 보고서에 대북금수 사치품 목록을 포함한 국가는 24개국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함.



- 대륙별로 보면 유럽이 16개국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미주대륙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몰디브뿐이었으며 중동과 아프리카에는 단 한 국가도 없음.
- **北, 유엔인권조사위 활동 비난…"남북대화에 찬물"**(8/2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3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서울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어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해 "남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반통일적 행위"라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는 '반공화국 인권소동이 불러올 후과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COI의 활동을 거론하며 "정세 흐름에 맞지 않게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을 걸고들며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매달린다면 모처럼 마련된 대화 분위기가 대결의 원점으로 되돌려질 수 있다"고 주장함.
- **北, 외국인 관광에 잇단 '빗장풀기'…"1년 내내 개방"**(8/24, 연합뉴스)
  - 24일 중국의 북한 전문여행사인 고려여행사 페이스북에 따르면 이 여행사의 북한 파트너는 최근 "북한이 처음으로 1년 내내 관광객들에게 개방될 것"이라는 소식을 통보해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고려여행사는 페이스북에 올해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방북하는 외국인 단체관광 상품을 소개함.
- **WFP·FAO, 9~10월 北서 작황 현장조사**(8/24,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과 식량농업기구(FAO)의 조사단이 다음달 말 북한을 방문해 올해 작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전함.
  - WFP의 북한 담당자는 WFP와 FAO의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 보름 동안 북한에 머물며 '작황과 식량상황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힘.
- **北 스키협회, 유럽국 스키장비 대북반출 불허 비난**(8/24, 연합뉴스)
  - 북한은 24일 스위스와 이탈리아 정부가 스키 리프트의 대북 반출을 불허한 것을 '유엔현장에 대한 유린'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스키협회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일부 나라들이 유엔제재라는데 걸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던 스키장 삭도(리프트) 설비 수출을 가로막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졌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들이 스키장을 이용할 수 없다고 간주했다면 그것은 우리 제도와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밝힘.
- **北, 외국인 대상 관광 투자설명회…외자 유치 주력**(8/24,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24일 평양에서 관광산업에 외자 유치를 위한 관광 설명회를 개





- **北, 을지연습 기간에 '평화·남북협력' 강조(8/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자주, 평화, 친선은 공화국 정부의 일관한 대외정책이념' 제목의 기사에서 "평화는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것"이라며 "조선전쟁 직후부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어 정전상태를 종식시킬 데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힘.
- **北, 차대통령 '지하병커' 회의 비난(8/20,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을지훈련 첫날 청와대 '지하병커'에서 회의를 하고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주문한 것에 대해 "공공연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조평통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전쟁과 평화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은 우리의 성의와 인내성을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면서 "남조선 당국이 계속 우리와의 대결을 추구한다면 북남관계는 또다시 악화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그로 인해 수습할 수 없는 파국적 후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주장함.
- **北 "남북관계, 다방면 대화로 근본적으로 개선해야"(8/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대화와 협력은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성공업지구 사업의 정상화는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에 밝혀진대로 각 분야에 걸쳐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북과 남은 모처럼 마련된 대화와 협력의 기운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며 "조국통일이라는 민족 공동의 큰 이익을 보지 못하고 험애하게 자기의 주장에만 매달린다면 불신과 대결의 골만 깊어질 뿐 북남관계는 언제 가도 개선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함.
- **北 "개성공단 합의, 한반도 주변정세에 긍정적 영향"(8/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의 결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는 이번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서 채택을 북남관계의 개선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으로 이어갈 확고한 의지 밑에 얼마전 몇가지 제안들을 내놓았다"며 "우리의 제안들이 실현되면 북남관계는 크게 진전하게 될 것이며 통일의 길이 앞당겨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북남 사이의 대화와 협력을 실현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쌍방이 관계개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조국통일의 대의에 복종시키면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라고 밝힘.



## 나. 경제·사회·문화

- **北,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구성·운영 초안 전달(8/19, 연합뉴스)**

  - 북한이 19일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초안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함.
  -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초안이 왔기 때문에 기존 우리 측 안과 비교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측 안을 북한에 보내는 게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힘.
  
- **北 민화협, 방북 국내 민간단체에 수해지원 요청(8/21, 연합뉴스)**

  - 대북 인도적 지원물자의 분배 상황 점검(모니터링)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방북했던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엄주현 사무처장은 21일 북측 협력상대인 민화협 관계자가 현지에서 북한의 수해 상황을 설명하며 수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엄 사무처장은 "민화협 관계자가 신의주와 사리원, 안주, 태천 지역에 수해가 상당하다며 수해지원이 가능한지 물어왔다"라며 "수해지원 식량량이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설명함.
  
- **남북, '추석 이산상봉' 실무접촉 내일 판문점서 개최(8/22, 연합뉴스)**

  - 북한이 22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23일 판문점에서 갖자'는 우리측 제안에 동의함에 따라 추석(9·19)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접촉이 23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이뤄지게 됐다고 연합뉴스가 22일 보도함.
  -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23일 이산상봉 실무접촉' 장소를 판문점으로 하는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우리측에 전달했으며 우리측이 다음달 25일 개최하자고 수정 제의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시기와 관련, "금강산 관광은 빨리 재개했으면 좋겠다"면서 8월 말~9월 초 금강산에서 회담을 개최하기를 희망함.
  
- **개성공단 기업 시설점검 완료...9월초 생산재개 요청(종합)(8/23, 연합뉴스)**

  - 남북 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틀 간 입주기업 방북 일정이 23일 마무리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통일부는 오후 5시께 당국자와 유관기관, 입주기업, 영업소에서 나온 306명(외국인 3명 포함)이 차량 143대에 나눠타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환했다고 밝힘.
  - 섬유·신발·기타 업체들이 포함됐으며 재가동에 앞서 개성공단 현지 공장장에서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 일정 등을 확인함.
  
-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 전문(8/23, 연합뉴스)**

  - 남북한은 23일 판문점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을 열어 내달 25일부터 30



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다음은 4개항으로 구성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 전문
  - 『남과 북은 2013년 8월 23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1. 남과 북은 2013년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 ①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100명씩 하기로 한다.
    - ② 생사확인 의뢰서는 8월 29일에 남과 북이 200명에서 250명 사이 각기 편리한대로, 회보서는 9월 13일, 최종명단은 9월 16일에 교환한다.
    - ③ 상봉 형식과 방법 등은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④ 쌍방은 상봉시작 5일전에 선발대를 현지에 파견한다.
  - 2. 남과 북은 2013년 10월 2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진행하며, 상봉 규모는 쌍방이 각각 40가족씩 하기로 하였다.
  - 3. 남과 북은 11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데 공감하면서 추석 계기 상봉이 끝난 직후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열고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생사확인, 서신교환 실시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하였다.
  - 2013년 8월 23일
  - 남북적십자실무접촉 남측 수석대표 이덕행
  - 북남적십자실무접촉 북측단장 박용일
- **추석 이산가족 상봉 내달 25~30일 금강산서 실시(종합)(8/23, 연합뉴스)**
- 남북은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기로 23일 합의함.
  - 양측은 이날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함.
  - 내달 상봉할 이산가족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으로 하기로 했으며, 상봉의 방법과 형식은 관례에 따르기로 했으며 남북은 추석 상봉에 이어 11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추석 상봉 직후 적십자 실무접촉을 추가로 열기로 함.
- **北, '추석 이산상봉 합의' 논평 없이 보도(8/23, 조선중앙통신)**
- 남북은 다음 달 25일부터 30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하기로 23일 합의함.
  - 양측은 이날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추석을 전후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추진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함.
  - 내달 상봉할 이산가족 규모는 남북 각각 100명으로 하기로 했으며, 상



봉의 방법과 형식은 관례에 따르기로 했으며 남북은 추석 상봉에 이어 11월 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한 차례 더 진행하는데 공감했으며, 이를 위해 추석 상봉 직후 적십자 실무접촉을 추가로 열기로 함.

■ 기타 (대남)

- '남북, 해외 온 거래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주체임을 명심하고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화해와 단합,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평화적 환경조성에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가야 한다'며 '분단 관련국, 평화와 안정에 기여' 촉구(8.19,중통)
- 국정원 정치개입사건에 대한 서울광장에서의 촛불집회 관련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南 민심의 발현'이라며 '당국은 집회를 탄압할 것이 아니라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8.19,평방)
- [北 「조평통」 대변인 담화(8.20)] 박 대통령의 을지연습 첫날(8.19) 청와대 '지하벙커' 회의에서 한 발언(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등)에 대해 '모처럼 마련된 남북사이의 대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대화상대방을 모독하는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비난(8.20,중통·중방)
- 北, '민족의 분열을 끝내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며 "외세 배격" 및 "우리민족끼리" 정신 강조(8.20,중통·중방·노동신문)
- '남북 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남북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민족의 통일적 발전과 번영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지속 '대화·협력' 강조(8.22,중통·노동신문)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6자회담 한국 대표 "회담 연내 개최 어려울 듯">(8/20, 미국의소리)
  - 북핵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6자회담 개최는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연내 개최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러시아를 방문해 한-러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가진 조 본부장은 오늘 (20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대화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조 본부장은 최근 개성공단 실무회담 타결을 비롯해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비핵화와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에서 6자회담 여건 조성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방미 중국 국방부장 "미국, 북한과 조건없는 대화 나서야">(8/21, 미국의소리)
  - 미국을 방문 중인 창완취안 중국 국방장관이 미국 고위 관리들을 만나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중국 관영 '중국신문망'이 21일 보도했다.
  - 신문은 창 부장을 수행한 중국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창 부장이 지난 19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미국에 북한과의 대화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 창 부장은 미국이 어렵게 얻은 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바란다면 대화의 조건을 달지 말 것을 요구했었다. 대화를 하지 않고 압력과 제재에 의존한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했다.
  -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미국에 실제적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 문제는 이미 매우 급박한 현안이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신문망'은 전했다.
  - 미국 측은 또 북한의 성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북한이 먼저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첫 회동...한반도 정세 논의>(8/22,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를 새로 맡은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2일 취임 후 처음 방한해 우리 정부 당국자들



과 협의를 벌였음.

- 이하라 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조태용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최근 남북관계 진전 등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향을 논의했음.
- 두 수석대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며 실질적인 비핵화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나. 미·북 관계

##### ● <메네테즈 "북, 핵으로 안전보장 불가">(8/19, 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로버트 메네테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19일 서울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그들이 원하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메네테즈 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에는 결코 보상이 따르지 않을 것이며 북한이 추가도발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메네테즈 위원장은 또 미국의 한국 방어를 위한 안보 공약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면서 한국인들이 누리는 자유와 존엄이 한반도 전체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다. 중·북 관계

##### ● <北핵실험 반년 지났지만 북중경협 여전히 '찬바람'>(8/23, 연합뉴스)

- 북한이 중국기업 등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설치한 조선투자사무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있다는 것은 핵실험 뒤 형성된 북중 경협 분위기를 잘 반영함.
- 지난해 가을까지만 해도 황금기에 접어들 것만 같았던 북중 경협은 같은 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올해 2월 핵실험 등 악재가 이어지면서 냉각기에 접어들었음.
- 올해 상반기 북중간 무역규모는 총 29억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가량 감소했는데, 이는 중국의 대북수출이 지난해 동기대비 14%가량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임.
- 북한의 핵실험이후 중국이 실제로 안보리 대북제재에 동참하면서 대북 투자심리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은 그러나 "리위안차오 부주석의 방중 이후에도 여전히 양측관계는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고 말했다.
-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개성공단 재기동을 둘러싼 남북회담과 관련해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배경에는 이처럼 딱 막혀버린 북중경협의 현실이 역설적으로 '지렛대' 작용을 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北 "한일합병조약은 날조품"...일에 과거청산 촉구>(8/22, 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한일 강제 합병조약 체결 103주년을 맞아 해당 조약의 불법성을 역설하면서 일본에 과거사 청산을 거듭 촉구했음.
- 노동신문은 이날 '불법무법의 강도적인 날조품 한일합병조약'이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 체결은 일제가 우리 민족과 국가를 말살하기 위해 무력에 의한 위협과 공갈로 날조한 것이라고 비판했음.
- 노동신문은 이어 "우리 인민뿐 아니라 일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인민들과 진보적 인민들은 일본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이 제라도 일본은 정신을 차리고 과거청산의 큰 걸음을 내짚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음.

마. 러·북 관계

● <러 "북, 연해주서 내년 옥수수 재배">(8/21, 자유아시아방송)

- 21일 연해주 정부(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김춘성 조선대외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끄는 북한 대표단이 이날 세르게이 시도로프 부지사를 예방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연해주 달네레첸스크 지역에서 북러 양국 간 농업 합작사업을 통해 옥수수 재배를 시작할 계획을 밝혔음.
- 앞서 립칭일 나훗카 주재 북한 총영사는 지난 6월 중순 블라디미르 미클루세프스키 연해주 주지사와 만나 양국 간 농업합작에 1백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밝힌바 있음.
- 북한은 또 올 초부터 토지를 빌려 농사를 짓고 있는 인근 아무르주와 지난 6월 초 경제협력 확대 협정을 체결하는 등 러시아 극동지역과 교류, 협력에 적극적임.

바. 기 타

● <UN, 북 선박 위반 2차 보고서 후 결정>(8/22, 자유아시아방송)

- 무기 관련 부품을 싣고 운항하던 북한 선박에 대한 유엔 제재위 현장 조사 보고서가 다음 주에 안보리에 제출되지만 유엔 결의 위반 판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 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룩셈부르크의 유엔 대표부 자크 플라이스 대변인은 파나마 현장 조사를 마친 전문가들의 1차 조사 보고서가 다음 주에 안보리에 제출될 전망이라고 22일 밝혔음.
- 한편, 제재위원회는 북한 선박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이후 처분과 관련한 권고를 하지만, 북한 선박과 선원, 화물의 처리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파나마 당국이 내린다고 제재위원회는 밝혔음.

- <“유엔 회원국,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 이행 부진<VOA>”(8/23, 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사치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제재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를 이행하는 국가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했음.
  - VOA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22일 현재 그동안 한 번이라도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96개국 가운데 보고서에 대북금수 사치품 목록을 포함한 국가는 유럽, 미국, 호주, 한국, 일본 등 24개국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 안보리는 지난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통해 북한에 무기와 함께 사치품의 수출도 금지한 바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대북 금수품목 지정은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기고 있음.
  - 다만, 대북 금수 사치품을 지정할 때 일반 북한 주민들이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해당 물품이 일반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건강, 복지에 필수적인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한미 방위비분담 3차협상 종료...분담금 전용 '격론'(8/23, 연합뉴스)
  -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3차 고위급 협의를 2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가졌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의 한 소식통은 23일 "오늘 오전에 끝난 3차 고위급 협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진 것은 없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이 미군기지 이전비 등으로 전용돼 온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반면, 미국은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정부의 양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제안에 난색을 보였다.
  - 한편, 다른 관계자는 "이번 3차 고위급 협의까지는 협상의 진전이 없었다"며 "내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4차 고위급 협의 때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나. 한·중 관계

- <중국 김광호씨 가족 한국행 결정 배경은>(8/19, 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재탈북자 김광호씨 부부와 딸을 한국에 넘기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이 남북한의 치열한 외교 경쟁 구도 속



- 에서 사실상 한국의 손을 들어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김씨 부부와 딸이 사실상 한국과 북한 국적을 동시에 가진 '이중 국적자 신분'이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던 사건이었고, 남북 양쪽 모두 이들의 신병 인도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 베이징의 한 서방국 외교관은 "중국이 북한의 반발에도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형식으로 김씨 부부와 딸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한편, 중국의 결정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쩍 강화된 한중관계와 3차 핵실험으로 악화한 북중관계의 최근 흐름을 반영한 것이란 평가가 나옴. 게다가 올해 1월 한국 사법 당국이 야스쿠니신사 방화 혐의자 류창을 일본이 아닌 중국에 넘긴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시각도 있음.
- <韓中 의회, 일본 역사왜곡 심각성에 공동인식>(8/21, 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의 국회의원들이 베이징에서 '한중 의회 정기교류체제 제8차 합동회의'를 갖고 일본의 일부 정치인과 관료들이 보이는 역사 왜곡 행태에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국의회 대표단 단장인 이병석 국회 부의장은 21일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의 일부 지도자, 정치인들이 과거 역사에 왜곡된 인식을 보이는 데 대해 양국 대표단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일본이 식민통치 역사를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주변국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음.

#### 다. 한·일 관계

- <일본, 내달초 한·일 정상회담 제안>(8/20, 연합뉴스)
-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19일 이병기 주일대사와 만찬을 겸해 가진 회동에서 'G20 회의를 포함해 가을에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때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음.
  - 9~10월 중에는 G20 정상회의 외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10월 7~8일 · 인도네시아 발리), 아세안+3 정상회의(10월 9~10일 · 브루나이)가 열림. 일본 측은 가급적 가장 가까운 일정인 G20 회의 때 회담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사는 "본국에 일본의 생각을 보고하겠다"고 말했음.
- <정부, 내달초 한일정상회담 개최 무리 판단>(8/21, 연합뉴스)
- 정부는 다음 달 초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을 갖자는 일본의 제안과 관련, '실질적인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내달 5~6일 열릴 G20 정상회의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



- 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별도의 정상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울 전망
- 정부 당국자는 21일 "정상회담을 하려면 (양국 정부간에) 사전 정치작업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G20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을 할 형편이 안된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레브리핑에서 "며칠 전 광복절에 일본 내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루어졌다"면서 "전몰자 추도식에서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가해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일본 총리의 식사 내용은 우리 정부가 아주 주목하고 있다"며 일본의 과거사 행보가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사했음.
- <한·일 공군, 알래스카서 첫 해외 합동훈련>(8/21, 연합뉴스)
- 한·일 양국 공군이 처음으로 합동 공중전투훈련에 동참했음. 20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태평양군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훈련인 '레드플래그 알래스카'가 지난 9일부터 알래스카주(州) 아일슨 공군기지 인근에서 2주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중임.
  - 특히, 지난 19일 알래스카 델타정선 지역에서 열린 훈련에서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4대가 일본의 C-130 수송기를 엄호하면서 가상적군의 공격을 피해가는 작전이 펼쳐졌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최근 과거사와 영토문제 등을 둘러싸고 외교 갈등을 빚는 가운데 군사부면에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음.
- <日 후쿠다 전 총리 서울에서 강연>(8/23, 아사히신문)
- 일본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총리는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포럼' 강연에 참석해 얼어붙은 양국 관계에 대해 "정치 지도자가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일 없이 그것을 진정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는 것이 강하게 요구된다"고 말했음.
  - 한편, 이번 포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후쿠다 전 총리의 회담을 위한 조정이 있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뒤로 미뤄졌음.
- <외교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사태에 적극대처">(8/23, 연합뉴스)
- 외교부는 22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따른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 "모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사태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이날 배포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 관련 조치 동향'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음.
  - 외교부는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4일 일본 외무성에 오염수 유출 현황과 일본측 대응 조치에 관한 추가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며 "일본측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조속히 답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 라. 미·중 관계

### ● <미·중 국방장관, 군사협력 강화 약속>(8/20, 미국의소리)

- 미국과 중국의 국방장관이 19일 워싱턴에서 만나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했음.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 군사협력체제 구축을 약속했음.
- 헤이글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그러면서 양국의 지속적인 군사 협력체제는 두 나라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창 국방 부장은 "양국의 군사 관계를 한층 강화 하기 위해" 노력하길 바란다고 언급하면서도 양국 관계가 어느 한나라에 의해 주도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이들은 또 양국 군사 관계는 '상호 의심'이 아닌 '상호 신뢰'에 기초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소말리아 인근 아덴 만에서 해적 소탕을 위한 공동 훈련을 비롯해 양국 간 군사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 <중국, 미국과 해상 연합훈련...군함 3척 출항>(8/21, 연합뉴스)

- 중국 해군 군함 3척이 미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 출항했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중국 매체를 인용해 21일 보도했음.
- 구축함 칭다오호와 미사일 호위함 린이(臨沂)함, 종합보급함인 홍쩌후(洪澤湖)함으로 구성된 편대는 미국 하와이 부근 해역에서 진행되는 중·미 해상 연합 수색·구조훈련에 참가할 예정임.
- 웨이강 소장은 미국과 연합훈련 참가에 대해 중·미 정상회담 때 중국과 미국 간 신형 대국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합의를 실제로 실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미국 정부 "센카쿠 분쟁서 어느 편도 안든다">(8/23,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2일(현지시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중전 입장을 재확인했음.
- 일본을 방문 중인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센카쿠 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밝히고 중국 측이 이에 반발하는 데 대한 공식 반응임.
-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미국의 센카쿠 정책이 변함없음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센카쿠의 궁극적인 영유권 문제에서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다"라고 부연했음.
- 한편,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댜오위다오에 대해 "미국 유관 의원이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을 하는 것을 중지할 것을 권고하며 유관 문제와 지역 형세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음.



#### 마. 미·일 관계

##### ● <美상원외교위원장 日에 일침…"과거 제대로 인식해야">(8/20, 연합뉴스)

- 한국을 방문중인 로버트 메넨데즈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9일 한일관계와 관련, "(일본이) 과거를 제대로 인식할 때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 메넨데즈 위원장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가진 연설 후 '일본이 내셔널리즘으로 회귀하고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 그는 "역사적인 문제는 치유될 필요가 있다"면서 "역사적 도전 과제에 직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 완전한 잠재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이어 "미국의 과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미국도 노예제를 완전히 폐지한 후에야 강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일본에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직시를 간접 촉구한 것으로 해석됨.
- 메넨데즈 위원장은 "마찬가지로 역사적 도전을 극복하려고 하는 (상대) 노력을 받아줄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만약에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면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 <<차기전투기> F-35 도입 결정한 일본>(7/21, 연합뉴스)

- 일본은 록히드마틴사의 최신예 스텔스기 F-35 도입 사업을 통해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쫓고 있음. 일본은 2009년 미국의 도입 제안을 받은 뒤 2011년 12월 F-35기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선정, 총 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완제품으로 4대를 구매하고 4대는 일본에서 미국과 공동 생산하며, 나머지 34대는 일본이 기술을 이전받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내용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센카쿠(중국어명: 댜오위다오)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중국이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20'을 내세운 상황에서 일본도 성능 면에서 중국 기종을 능가하는 최신예 스텔스기를 갖춰야할 필요성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됨.
- 또한, 일본은 F-35의 생산이 지연되면서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는 대신, 미국 측으로부터 전투기 기술을 이전받고, 항공기 부품 제조에 일본 기업의 참여를 보장받았음.
- 한편, 일본은 이 뿐만 아니라 F-35 도입을 자국이 평화헌법의 구속에서 벗어나 '정상국가'로 가는 과정에서의 디딤돌로 활용함. 특히, 작년 12월 '무기수출 3원칙'을 대폭 완화한데 이어, 지난 3월 내각회의에서 F-35 부품제조를 예외로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음.

##### ● <美·日 전시상황 가정 합동훈련…센카쿠 충돌 대비용>(7/22,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전시 상황을 가정해 미국 해병대와 육상 자위대가 참가



하고 합동 군사훈련을 오는 10월 시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음. 양국 합동 훈련 사상 처음으로 미군의 수직 이착륙기 '오스프리'를 활용할 예정

- 올해 6월 일본은 미국 샌디에이고 앞바다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점령 상황을 가정하고 낙도 탈환 상륙 훈련을 미국과 공동으로 벌인바 있음. 일본이 수위를 높여 전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하기로 한 것은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분쟁이 더 격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취지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바. 미·러 관계

##### ● <"미·러, 17년간 구소련 핵 실험장 정화 작업">(8/19, 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1996년부터 2012년까지 17년간 카자흐스탄 세미팔란틴스크 지역에 위치한 구(舊)소련 시대 핵 실험장에서 수백 파운드의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수거하는 비밀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이 19일 하버드대 벨퍼센터가 펴낸 한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음.
- 1999년 미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자금을 대는 조건으로 세미팔란틴스크 지역의 구소련 핵 실험장에 대한 정화작업에 나서기로 합의한바 있음. 러시아는 정보를 제공하고 과학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카자흐스탄은 현장작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음.

#### 사. 중·일 관계

##### ● <일본, 센카쿠 경계용 비행감시부대 신설키로>(8/22, 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은 중국에 대한 견제강화 차원에서 조기경보기(E2C)를 운용하는 '비행경계감시대'를 오키나와현 나하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설치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22일 보도했음.
- 방위성은 중국 전투기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진입에 대한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침을 굳혔으며, 이달 말 마감되는 내년도 예산안 요구때 관련 비용으로 13억엔(약 149억원)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산케이는 전했다.
- 한편, 지난해 9월 일본이 센카쿠 일부 섬을 국유화한 이후 중국군 전투기와 정보수집기가 동중국해의 센카쿠 상공에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 ● <중국 외교부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 충격적">(8/22, 연합뉴스)

-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따른 오염수 유출과 관련해 중국 당국이 우려를 나타내며 일본측에 사고 처리에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음.
- 22일 홍콩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방사성 오염수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 2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태평양에 유출되고 있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라면서 "일본이 이번 일이



가져온 영향을 처리하는데 있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중국 외교부는 또 누출에 대해 중국에 통지하기로 한 상호 합의를 지킬 것을 일본 측에 촉구했음.

● <중국 함대 오스미 해협 통과...日초계기 감시>(8/23, 연합뉴스)

- 중국 북해함대 소속 군함 3척이 22일 일본 오스미 해협을 거쳐 서태평양으로 나가 일본의 신경을 건드렸음.
- 내달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미중 해상 연합수색 및 구조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항해중인 미사일 구축함 '칭다오'호 등 3척의 군함은 22일 5시간의 항해 끝에 오스미해협을 통과했다고 중국신문망이 전했다.
- 오스미 해협은 비교적 일본 중심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의 미야코 해협과 달리 규슈섬에 인접해 있어 일본측은 이번 중국 함정의 통과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음.
- 중국 함대가 이번에 오스미해협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향한 것은 미국과의 합동 훈련 참가를 명분으로 일본 중심부와 가까운 지역을 항해하며 일본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아. 일·러 관계

● <“러·일 정상, 내달 G20 정상회의서 양자회담”>(8/19, 연합뉴스)

-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양자회담을 가질 것으로 19일(현지시간) 알려졌다.
- 한 소식통에 따르면 스기야마 신스케 일본 외무성 정무 담당 외무심의관과 이고르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음.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의 양자 정상회담은 G20 정상회의 첫날인 다음달 5일로 예정된 것으로 전해졌음.
- 한편, 스기야마 심의관과 모그울로프 차관은 이날 회담에서 양국간 영토분쟁에 대한 협상을 사실상 재개했음.

● <일본 러시아측에 자국 영공 침범 항의>(8/22, 로이터)

- 일본 방위성은 TU-95 폭격기 2대가 22일 2분미만의 시간 동안 자국 영공을 침범해 자위대를 출동시켜 대응했다고 밝혔음.
- 일본 방위성 대변인은 러시아 폭격기 2대가 큐슈 남쪽 인근 자국 영공으로 침입했으며, 즉각 항공 자위대 F-2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켜 러시아 폭격기에 대응했다"고 발표했다.
- 일본 외무성은 주일본 러시아 대사관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진상 조사를 요구했음. 이에 러시아 국방부는 "국가의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고 일본 방위성의 발표 내용을 부인했음.



## 자. 기. 타

- <“뼈격대는 오바마 2기 외교…세계 곳곳서 적색등”>(8/19, 연합뉴스)
  - 미국에서 보수성향의 싱크탱크로 평가되는 헤리티지재단의 제임스 캐러파노 부회장은 18일(현지시간) 오바마 2기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적으로 진단했음.
  - ◇ 빛바랜 '오바마 독트린' = 오바마 외교의 3대 독트린은 △문제국가들에 대한 직접 관여 △군사력보다 외교와 경제를 앞세운 '소프트 파워' 외교 △국제기구를 활용한 다자주의 외교로 압축됨.
  - 이중 핵심 키워드는 '관여(engagement).' 그러나 정작 상대정권이 '관여'를 거부하자 대응옵션이 사라졌고 오바마 행정부 스스로 무원칙한 대응으로 일관한 끝에 위기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임.
  - ◇ 중동정책 딜레마 = 중동은 외교난맥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케이스. 관여정책이 예상만큼 먹혀들지 않자 한편으로는 중동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실리를 놓치지 않으려다 보니 외교적 대응이 '뒤죽박죽'이 됐다는 평가임.
  - ◇ 존재감 잃은 '아시아 중심' 외교 = 아시아로 군사·외교적 자원을 집중시킨다는 '아시아 중심축 이동' 전략은 내용없는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옴. 이 전략의 핵심은 중국 견제이지만 중국의 팽창주의 행보는 갈수록 기세를 올리고 있다는게 워싱턴의 시각임.
  - ◇ 물 건너간 러시아와 '리셋' = 오바마 행정부는 1기때부터 러시아를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지지 △유럽 미사일방어(MD)체계 철수 △2010년 서명한 신 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서명 등 일련의 관여정책을 펴왔음.
  - 그러나 모스크바로부터 돌아온 답은 냉랭했음. 급기야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취소한다고 전격 선언, 양국관계는 다시 틀어졌음. 행정부 관리들조차 "리셋은 죽었다"는 말이 나온다는 전언임.
- <아시아 군비 경쟁 치열…8년후 미국 국방예산 추월>(8/23, 연합뉴스)
  - 2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아시아 국가들의 군비 경쟁으로 국제 군사비 지출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전환되고 있으며 역대 군사비 지출이 오는 2021년이 되면 미국을 넘어 선다는 내용의 보고서들이 발표됐음.
  -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연례보고서인 '군사균형(Military Balance)'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수입 급증에 주목하면서 "군사력의 세계적 전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규정했음.
  - 이와 관련 미국 국무부에서 중국문제를 담당했던 얼리 래트너는 22일 '미국 대서양 협의회'가 주최한 포럼에서 중국이 미국의 '아시아로의 전략 중심 이동'에 맞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이런 전략을 모방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그는 또 주변 국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대칭 전력 강화에 나서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면서 각국의 군비 경쟁으로 역내 군사적 공간이 비좁아져 돌발 사태가 발생하고 오판이 나올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